

# 멕시코 Mexico



## I. 투자환경위험 평가 결과

### 투자환경위험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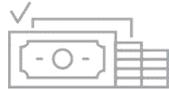


 보통

풍부한 부존자원, 거대한 내수시장, 비교적 안정적인 외환보유고와 단기외채 규모 등 양호한 투자 조건에도 불구하고, 경기둔화 지속, 2018년 말 출범한 AMLO 정권의 불확실한 정책에 따른 시장 신뢰도 하락 등을 감안하여 투자환경위험 수준을 '보통'으로 평가

### 평가분야



<b>투자동향</b> 10% 	<b>국가위험도</b> 40% 	<b>투자여건</b> 50% 
---	--	---

### 평점기준



### 평점산출내역



#### 분야별 평점(위험수준)

투자동향(10%)		주의	국가위험도(40%)		양호	투자여건(50%)		보통
2017년	2018년	2019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17년	2018년	2019년
68.0	56.0	54.0	33.5	30.5	33.0	45.9	45.9	44.7

#### 종합평점(위험수준)

보통		보통		보통	
2017년	43.1점	2018년	40.9점	2019년	40.9점



## II. 주요 시장 동향·제도 변화

<p><b>정치</b>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18년 12월 로페스 오브라도르(AMLO) 대통령 집권, 첫 좌파 정권 탄생</li> <li>• 여당 연합이 상원(61.4%) 및 하원(54%)의 과반 점유, 정책 추진에 탄력성 확보</li> </ul>
<p><b>경제</b>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IMF,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: 1.6% → 0.9%</li> <li>• PEMEX 재정 부담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전망(GDP 대비) : -2.3%(‘18) → -2.5%(‘19<sup>f</sup>)</li> <li>• 2019년 상반기 중 국가신용등급/전망 강등 : Fitch(BBB+/부정적 → <u>BBB/안정적</u>), Moody's(A3/안정적 → A3/부정적)</li> <li>• FDI 유입액 전망 : 316억 달러(‘18) → 329억 달러(‘19<sup>f</sup>, EIU)</li> </ul>
<p><b>1. 투자정책 (산업관리/ 법률·규제)</b></p>	<p><b>악화</b></p> <p><b>외국인투자법에 따라 내·외국인 동등 대우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원자력발전, 우편업무 등 민간투자 금지 분야와 공중파 방송, 국내교통 등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를 제외한 전 산업에 대해 100% 외국인투자 허용. 다만,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는 미미함.</li> <li>• AMLO 정권 취임 후, 비공식 국민투표를 통한 멕시코시티 신공항 건설(130억 달러) 추진 중단, 신규 유전 광구 입찰 대거 취소 및 3년 간(~’21년말) 보류, 로스 카도스 광산 프로젝트 취소 등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 저하</li> </ul>
<p><b>2. 외환제도 (외환통제/ 해외송금/ 환율동향)</b></p>	<p><b>유지</b></p> <p><b>자금세탁방지법 시행을 통한 현금흐름 투명성 강화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13년 7월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금지, 현금거래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고 의무를 강화한 자금세탁방지법 시행</li> </ul> <p>※ 단, 정부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등 대내요인 및 미·중 무역갈등, 글로벌 경기침체 등 외부 요인은 폐소화 변동요인으로 작용 가능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 달러당 폐소화 환율 : 19.65(‘18) → 19.15(‘19.7) → 19.16(‘19말<sup>f</sup>) → 20.15(‘20말<sup>f</sup>)</li> </ul>
<p><b>3. 조세제도 (법인세)</b></p>	<p><b>유지</b></p> <p><b>세제 개혁으로 조세체계 개선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14년 1월부터 시행 중이며 단일세율법인세(IETU) 폐지, 현금보유세(IDE) 폐지, 부가가치세를 단일화, 표준법인세율(30%) 유지, 배당세(10%) 신설, 탄소세 신설, 특별소비세(IEPS) 개정 등이 주요 내용</li> </ul> <p><b>미국 접경지대(Border Economic Zone) 특별세제 도입으로 투자 촉진 도모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19년 1월 ~ 2020년 말까지 미국 접경지대 기업들의 법인세(30% → 20%) 및 부가세 인하(16% → 8%)</li> <li>- 투자 촉진, 고용 창출 등 경제성장 뒷받침, 중남미 국가들로부터의 난민 유입 방지 목적</li> </ul>



#### 4. 금융제도 (현지조달/ 자본시장)

##### 유지

##### 외국계 은행이 장악한 금융산업

- 1994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쳐, 2013년 금융 부문 전면 자유화로 현재 멕시코 금융의 80% 가량을 외국자본이 점유
  - 7개 금융그룹이 전체 금융자산의 85% 차지, 이중 5개가 외국계로 스페인계(Bancomer, Santander)가 가장 높은 점유율 차지

##### 조달금리는 여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

- 2018년 시중은행 평균 대출이율은 연 8.1%(17년 연 7.3%. World Bank 발표) 수준으로, 중남미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함 → Doing Business(18년), 신용획득 부문 8위

#### 5. 노동제도 (근로조건/ 고용해고/ 노사관리)

##### 개선

##### 법정 근로시간 규정, 최저임금은 OECD 최하위 수준

- 노동력이 비교적 풍부하고 임금 수준이 낮으나, 높은 이직률과 낮은 숙련도로 노동생산성이 낮음
  - AMLO 대통령, 명목 최저임금 16% 인상 명령 → 2019년 최저임금은 102.68페소/일, Border Economic Zone 소재 근로자 최저임금은 약 2배인 176.72페소/일로 인상
  - 향후 4년간 공공의료 시스템의 연방화, 모든 의약품의 무상 지급안 발표(18년말)

#####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(19.4월)

-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을 대체하는 미국-멕시코-캐나다 협정(USMCA)의 비준을 위해 정부와 사측 위주로 이루어진 노동 시스템 개선 목적
  - 독립적인 노동재판소 설립 및 동 재판소를 통한 분쟁 해결
  -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 및 대표 선출(비밀투표 보장) 권리 보장
  - 정부, 사측의 폭력, 강압적 노동으로부터의 보호
  - 동맹 파업 등 쟁의권 보장 등

#### 6. 무역제도 (관세수준/ 무역제한)

##### 유지

##### 과도한 대미 의존도 경감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FTA 추진

- 전 세계 50개국과 13개 FTA, 33개국과 투자보장협정 체결
  - 높은 대미 의존도 경감, 아시아·유럽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목적
- 2018년 말 TPP11(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) 발효
- 터키, 요르단, 파라과이(신규 FTA), EU, 싱가포르(FTA 재협상), 브라질(양자간 무역협정) 논의 중
  - ※ 우리나라는 멕시코가 속한 태평양동맹과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(19.9), 협상 타결시 멕시코와 신규 양자 FTA 체결과 같은 효과 예상

##### AMLO 정권의 적극적인 USMCA 추진

- 현재 3국 중 멕시코만 비준 완료(19.6월), 캐나다 비준 절차 돌입(19.5월~)
  - 미국은 중남미 난민 유입 문제와 연계, 비준 보류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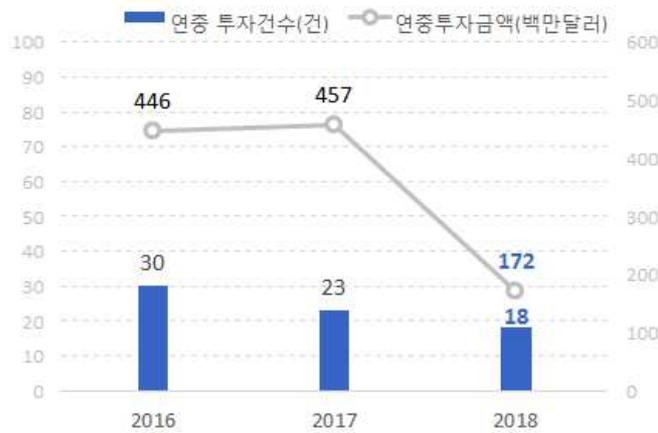
(붙임) 평가 분야별 세부내용



I. 외국인투자 동향

1. 직접투자 실적

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직접투자 실적



투자누계

투자건수 누계

409건



투자총액 누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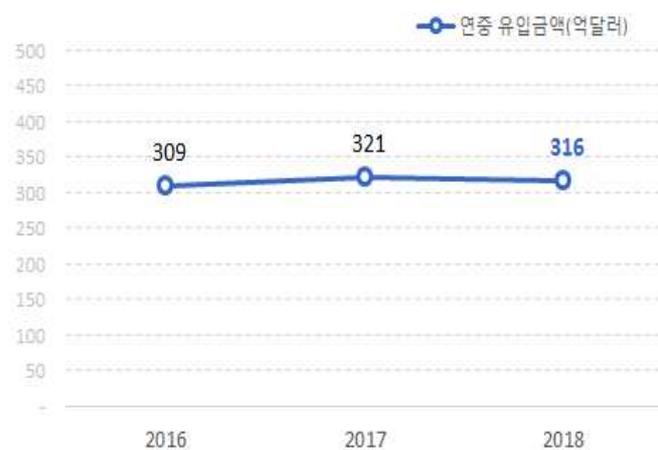
5,434백만 달러



주) 2016~2018년은 해당연도 실적, 투자누계는 2019년 3월말 기준 전체 누계 실적  
자료)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

2. 외국인직접투자 (FDI) 유입 실적

대 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 실적



자료)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9



## II. 국가위험도 평가

### 1. 국가신용등급

구분	2017	2018	2019.8
한국수출입은행	B2	B2	B2
OECD	3	3	3
Moody's	A3	A3	A3
Fitch	BBB+	BBB+	BBB

### 2. 단기유동성위험

구분	총외채/총수출 (%) 	외환보유액/월평균수입 (개월) 	외채원리금 상환비율 (D.S.R.)(%) 	단기외채/외환보유액 (%) 	ECA거래실적 (OECD)(%) 
OECD권고	120% 이하	3개월 이상	15% 이하	100% 이하	-
2017	99.0	4.0	10.0	38.9	13.7*
2018	95.1	3.6	10.3	36.6	15.2**

자료) OECD  
 \* 2017년 6월 기준  
 \*\* 2018년 6월 기준

### 3. 단기유동성위험 진단점수

구분	수용위험 (계약실행 가능성) 	이윤 송금위험 	대외지급 연체위험 
2018.5	2.5	2.5	2.5
2019.5	2.5	2.5	2.5

주) 1. PRS, ICRG 기준  
 2. 진단점수는 0~4점(0.5단위) 체계로 0은 '매우 높은 위험', 4점은 '매우 낮은 위험'을 의미함



### Ⅲ. 투자여건 평가

#### 1. 기업경영여건

구분	순위	
	2017	2018
1 창업(Starting a Business)	90/190	94/190
2 건축인허가(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)	87/190	93/190
3 전력수급(Getting Electricity)	92/190	99/190
4 재산등록(Registering Property)	99/190	103/190
5 신용획득(Getting Credit)	6/190	8/190
6 소액투자자보호(Protecting Minority Investors)	62/190	72/190
7 조세납부(Paying Taxes)	115/190	116/190
8 대외무역(Trading Across Borders)	63/190	66/190
9 계약실행(Enforcing Contracts)	41/190	43/190
10 사업청산(Resolving Insolvency)	31/190	32/190
종합순위	<b>49/190</b>	<b>54/190</b>

자료) World Bank, Doing Business

#### 2. 글로벌경쟁력 지수

구분	순위		구분	순위	
	2017			2018	
1 제도(정책, 시스템)	123/137		1 제도(정책, 시스템)	105/140	
2 인프라스트럭처	62/137		2 인프라스트럭처	49/140	
3 거시경제 안정성	43/137		3 ICT 도입	76/140	
4 보건·교육	76/137		4 거시경제 안정성	35/140	
5 인력관리(연수)	80/137		5 보건	56/140	
6 상품시장 효율성	70/137		6 기술(교육)	86/140	
7 노동시장 효율성	105/137		7 상품시장	54/140	
8 금융시장 발전수준	36/137		8 노동시장	100/140	
9 기술수준	71/137		9 금융제도	61/140	
10 시장규모	11/137		10 시장규모	11/140	
11 기업 발전수준	49/137		11 기업 역동성	41/140	
12 R&D 혁신	56/137		12 혁신 역량	50/140	
종합순위	<b>51/137</b>		종합순위	<b>46/140</b>	

자료) WEF,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



3. 시장동향·제도 변화

정성평가

종전평가 대비	평가				
	매우개선	개선	유지	악화	매우악화
투자정책				✓	
외환제도			✓		
조세제도			✓		
금융제도			✓		
노동제도		✓			
무역제도			✓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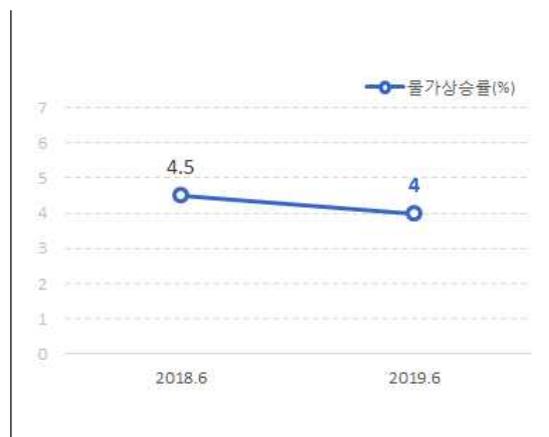
주) 종전 대비 변동내역 및 현 수준 평가

정량평가

환율(미달러대비)



물가상승률



2018.6	2019.6	증감률
20.30	19.29	-5.0%

주) 해당월 평균 환율

2018.6	2019.6
4.5%	4.0%

주) 전년동월 대비 변동